

'속수무책' 야생동물 공습

멧돼지·조류, 묘지·밭 파헤쳐 무등산 인근 마을 피해 잇따라

광주 무등산 일대 인근 마을의 보라·밀·과수 재배 농가와 야산 묘지가 멧돼지와 비둘기 등 야생동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9일 광주시 북구청 등에 따르면 무등산 자락 야산과 들이 산재한 북구 석곡동(장동·운정·화암·금곡마을 등)에 최근 야생 멧돼지와 조류(꿩·비둘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로 내려와 밀·보리·고구마밭은 물론 대추·감·석류 과수원에 심어진 묘목 등을 훼손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야산에 흩어져있는 묘소도 술과 음식 냄새를 맡은 야생멧돼지 등에 의해 마구 파헤쳐지고 있어 묘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29일 현재 멧돼지·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농가는 모두 6곳. 멧돼지때의 습격을 받아 훼손된 묘지 수도 10여기(基)에 달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농작물 및 묘지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광주시 북구 장동동에 사는 송모(44)씨는 지난 20일 멧돼지가 661.2㎡ 규모의 석류·감 과수원을 마구 해치고 다니며 묘목 100그루 중 60그루의 가치를 부러뜨려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조상 묘지의 분봉도 3분

의 1가량이 파헤쳐지는 피해를 입었다.

또 금곡동에 사는 윤모(54)씨의 경우도 묘지 3기가 훼손되고 고구마 밭에도 이달 초 멧돼지들이 침입해 고구마를 파서 먹거나 줄기를 훼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기모(82·북구 화암동)씨도 묘지 훼손과 함께, 밀·보리밭 피해를 입었다. 송씨는 "멧돼지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묘지와 밭을 헤집고 다니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최근엔 멧돼지들이 마을 냇가까지 내려와 주민들이 이들을 피해 도망 다닌 적도 있었다. 이들을 포획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한국 야생동물·식물보호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 멧돼지 포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구는 30일 야생동물·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유해조수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최근 몇 년 새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29일 광주시 북구 석곡동 장동마을 인근 야산에 조성된 묘지가 야생 멧돼지때에 의해 분봉 3분의 1 가량이 심하게 파헤쳐진 채 훼손되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검찰, 5·18 진실 외면하나

보안법 항의 서한문 반송...5월단체 반발 재발송

최근 5·18 민중항쟁 사료(史料)를 인용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남지역 대안학교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5월 관련단체로부터 받은 항의서한문을 반송처리해 반발을 사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들은 지난 27일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5·18 관련사료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대안학교 최모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것을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문을 검찰에 재발송했다.

5·18 기념재단 측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문을 검찰에 보냈으나 이를 만에 반송처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반송된 우편물에는 반송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다. 또 검찰의 입장은 물론 한 통의 전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검찰이 전

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실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로 광주시민과 5월 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국가기관 검찰이 정부가 규정한 민주화운동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대검 20대 사건 선정

'박종철' 1위, '5·18' 2위

대검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검사와 검찰직원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설문조사해 20대 사건을 선정, 29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으로 응답자의 67%인 2천500여명이 선택했다. 2위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사건', 3위로는 '이철희 검찰의 이 같은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습스

안타까운 죽음들

성적 비관 초등생 목 매 숨져

성적하락을 비관한 한 초등학생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8일 오후 7시경 광주시 광산구 P(43)씨의 아파트 작은 방에서 P씨의 초등학생 아들(10)이 행거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P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P씨는 경찰에서 "회사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방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P군의 방안에는 '엄마, 아빠 나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싫어 자살합니다. 잘 사세요'

라고 적힌 쪽지에 적어놓은 유서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P군이 최근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떨어진 것을 비관해 크게 낙심하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초등학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채 고민 30대 이혼여성 자살

이혼 후 혼자 살던 30대 여성이 카드빚 등 자신이 진 부채 때문에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8일 오전 9시경 광주시 남구 A(여·33)씨의 주택에서 A씨가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애인 B(4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안방에 가보니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으며 지인들에게도 빚을 지는 등 4천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빚이 너무 많다. 죽고 싶다"고 전날 말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담양군 공무원 12명

운수업체 '떡값' 받아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공무원들이 운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떡값' 등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 A운수회사 전·현직 대표의 횡령·배임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과장급이 포함된 담양군 공무원 12명이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전남도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수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굴비 등 명절 선물, 떡값, 축·조의금, 병문안 비용 등 향목과 공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떡값 장부'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장부에는 이들 공무원들이 한 차례에 20만~30만원씩 지난 1년간

총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은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해 있었다"며 "그러나 명절 인사, 결혼식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된데다가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때문에 형사처벌하지 않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비자금 조성하거나 탈세 후 가산세를 물게 된 혐의(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로 운수회사 전·현직 대표 2명을, 이 회사의 불법사실을 외부에 알리려다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40) 김장동



다중의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력 및 상담관행

법정 도주 피고인 6일만에 자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달아났다가 6일만에 검찰에 자수.

○2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S(30)씨가 법정을 탈출해 달아났다가 6일만인 지난 28일 오후 자수했다는 것.

○S씨는 유증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하는 대가로 받은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2일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법정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달아났다는 것.

○S씨는 달아난 뒤 자신을 수사한 목포지청 문모 검사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고 문 검사는 S씨를 설득해 자수를 유도. /목포=이성휴기자 lsh@

Advertisement for 'OPEN 동' (Open Dong)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woman (Jang Yunjeong) and a grid of smaller images of other performers. Text includes '11월 14(금) 오후 8시' and '광주침단 3,000명'.